



2026시즌부터 F1 대회에 출전하는 아우디 팩토리팀의 마신.



지난 11월 열린 2025 F1 월드챔피언십 24라운드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GP) 결승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며 축하받는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 /연합뉴스

머신 경량화·DRS 폐지...완전히 다른 F1 레이스 온다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푸시 투 패스' 도입...팀 전력 구도 변화 예고
캐딜락 합류·아우디 출범 11개팀 체제 경쟁...맥라렌 시대 흔들리나

2026년 포뮬러원(F1) 월드챔피언십은 새시와 엔진 규정의 대규모 변화를 통해 레이스 판도에 '역대급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시즌 F1은 드라이버 챔피언과 제조사 챔피언을 모두 휩쓴 맥라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영국 출신 드라이버 랜도 노리스는 시즌 7승을 달성하며 드라이버 랭킹 포인트 423점을 쌓아 5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에 도전했던 막스 페르스타펜(레드불·421점)을 2점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드라이버 왕좌'에 올랐다.
더불어 맥라렌은 이번 시즌 나란히 7승을 따낸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호주)의 쌍둥이 활약을 앞세워 2년 연속 '콘스트럭터스(제조사) 챔피언'에 오르며 27년 만에 드라이버 챔피언과 제조사 챔피언을 모두 차지하는 더블을 달성했다.
하지만 내년 3월 호주에서 출발하는 2026년 시즌은 대규모 규정 변경은 물론 새로운 팀이 추가되며 쉽사리 우승팀을 전망하기 어렵게 됐다.
◇머신은 경량화...새시·엔진 규정 대변화
2026년 F1에 나서는 머신들은 더 작고, 더 민첩해지고, 더 친환경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우선 머신의 무게는 768kg으로 기존보다 30kg이나 줄고, 머신의 폭(2000mm→1900mm)은 10cm, 축거(앞바퀴와 뒷바퀴 거리·3600mm→3400mm)도 20cm 감소하게 돼 머신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를 통해 머신의 다운포스(지면에 밀착시키는

힘)는 30%, 항력(전진을 막는 힘)은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운포스는 줄지만 항력까지 크게 줄면서 머신은 직선 구간에서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게 됐다.
또 머신의 후방 날개(리어윙) 플랩의 개폐를 통해 직선 구간에서 공기 저항을 줄여 앞지르기에 활용된 DRS(항력 감소 시스템)가 폐지되고, 대신 전기 출력 증가 버튼을 통해 일정 시간 추가로 전력을 제공해 머신의 출력을 높이는 '푸시 투 패스'(Push-to-Pass)가 도입되는 것도 눈에 띈다.
DRS를 통한 '손쉬운 추월'이 어렵게 되고 머신의 복잡해진 에너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드라이버의 운전 능력뿐만 아니라 섬세한 판단력이 레이스의 승패를 결정하게 됐다.
더불어 엔진은 1.6 l V6(V자형 6기통)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비중이 80대20에서 50대50으로 바뀌는 것도 엄청난 변화다.

배기가스의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장치인 'MGU-H'가 사라지고, 제동할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회수하는 'MGU-K'의 출력이 3배 가까이 높아지게 돼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커지게 됐다.
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공약한 F1은 새 시즌에 '100% 지속 가능한 연료'만 사용하게 된다.
'100% 지속 가능한 연료'는 화석 연료 대신 식물성 기름, 동물성 지방,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통해 생산된 연료를 의미한다.
전기모터의 비중이 커지면서 머신의 연비도 좋아져서 레이싱당 100kg이 필요했던 연료가 70~75kg으로 줄게 됐다.
◇캐딜락의 합류로 11개 팀 체제...자우버는 아우디로 변경
2026시즌에는 제너럴모터스(GM)가 후원하는 캐딜락이 새로 합류해 11개 팀 체제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캐딜락은 메르세데스와 자우버 등에서 활약했던

발테리 보타스(핀란드)와 레드불에서 뛰었던 세르히오 페레스(멕시코)의 '베테랑 듀오'를 첫 시즌 라인업으로 선택했다.
보타스는 10승, 페레스는 6승을 기록했고, 둘의 시상대 경력은 106회(보타스 39회·페레스 67회)에 이른다.
또 킷 자우버-페라리 팀은 자동차 메이커 아우디가 인수해 '레볼루트 아우디 F1 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아우디는 자우버의 드라이버였던 니코 뢰켄베르크(독일)와 가브리엘루 보르톨레투(브라질)를 그대로 기용한다.
이후에 2026년 F1은 24라운드로 치러지는 가운데 스페인에서 열리는 경기는 2회로 늘었다.
스페인 GP(16라운드·2026년 9월 11~13일)는 마드리드에 새로 만들어진 마드링 서킷에서 열리고, 이에 앞서 6월 12~14일에는 바르셀로나-카탈루냐 GP가 펼쳐진다.
/연합뉴스

‘한국 女 스노보드 간판’ 최가온, 하프파이프 월드컵 예선 1위



오늘 중국 허베이성서 결선
최가온(세화여고·사진)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1위에 올랐다.
최가온은 10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열린 2025-2026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93.0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32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최가온은 1차 시기 89.7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2차 시기에서 93.00점으로 예선 1위를 확정했다.
1차 시기 88.50점을 획득한 구도 리세(일본)가 2차 시기 91.25점을 따내 예선 2위에 올랐다.

3위는 87.25점의 오노 미쓰키(일본)다.
10위까지 결선에 진출했으며 메달 주인공을 가리는 결선은 12일에 열린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기술여진 반 원통형 슬로프에서 공중회전과 점프 등의 연기를 심판들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손 화이트, 클로이 김(이상 미국)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무대를 빛냈던 중국이 바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다.
2008년생 최가온은 2023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월드컵 동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가온은 2026년 2월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돌입

내년 4월 구례 개최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내년 4월 구례에서 열리는 '제34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구례 백두대간생태교육

장에서 전남도, 전남장애인체육회, 구례군, 각 경기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장 실사를 진행하고, 대회 개최 계획 보고 및 참가 요강 협의, 구례군의 협조 사항 등 대회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

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에는 개·폐회식과 성화 행사를 총괄할 전문 대행사를 선정하고, 구례의 역사와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공개행사 연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리며,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이 참가해 21개 종목에서 열정과 화합의 무대를 펼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은지 vs 최정...하림배서 3번째 맞대결

16일부터 프로여자국수전 결승

한국 여자바둑을 대표하는 신구 에이스 김은지(18) 9단과 최정(29) 9단이 다시 한번 정면 대결을 벌인다.
김은지와 최정은 오는 16일부터 제30기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를 치른다.
후원사 시드로 하림배 본선에 출전한 김은지는 16강부터 유우현 3단, 조승아 7단, 오유진 9단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전기 대회 4강 시드를 받은 최정은 전유진 초단과 김경은 5단, 나카무라 스미레 4단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은지는 하림배 첫 우승에 도전하지만, 최정은 이미 6차례나 우승했다.
올해 들어 한국 여자랭킹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김은지와 최정이 결승전에서 맞붙는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지난 5월 닥터지 여자최고기사 결정전에서는 최정이 승리했고 최근 끝난 오정원배에서는 김은지가 최정을 따돌리고 생애 처음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다.
통산 상대 전적은 최정이 20승 9패로 여전히 크게 앞서 있다.
타이틀 매치 성적도 최정이 5승 2패로 앞선다.



최정(왼쪽) 9단과 김은지 9단이 16일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에서 다시 맞붙는다. 오정원배 결승 장면. <한국기원 제공>

하지만 올해 상대 전적만 따지면 4승 4패로 팽팽히 맞선다. 11살 어린 김은지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다.
김은지가 하림배에서 다시 한번 최정을 밀어낼지, 최정이 간재함을 과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30주년을 맞은 하림배는 결승 3번기가 끝나고 오는 24일 한국기원 사육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팬들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팀 김은지와 팀 최정으로 나눠 20명씩 릴레이 바둑을 펼치고 팬 사인회도 개최한다.
하림배 우승 상금은 3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피서) 방식으로 각자 30분에 추가시간 30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호접몽 : 고미아 개인전

일시 : 2025-12-05(금) ~ 2025-12-31(수)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1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Winter Rhapsody'

일시 : 2025-12-12(금)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